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28
MAY 22 2020

발간년월 2020년 5월 22일 (통권 제12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수중 파이프 부설 전문선박 투입 노드스트림-2 가스관 연내 완공 박차
- 아르한겔스크주·네넨츠자치구 통합 추진, 연방정부 투자 확대로 북극권 개발 기대
- 러시아 공수 부대, 세계 최초로 북극상공에서 낙하 훈련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2035 북극전략 세부 프로그램 개발 착수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크라이나 노동조합 활동 적극적
- 아르메니아, 남코카서스 철도 최근 4개월 간 물동량 발표

주요 통계

- 2020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러시아, 수중 파이프 부설 전문선박 투입하면서 ‘노드스트림-2’가 스관 연내 완공 박차

■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독일, 노드스트림-2 건설을 강행

- ‘노드스트림-2(Nord Stream-2)’ 가스관 프로젝트는 독일에서 발트 해를 관통해 러시아 북부를 연결하는 가스관 2개 라인을 신설해 기존 수송 용량을 두 배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추진 중임
- ‘노드스트림-2’ 가스관 프로젝트는 총 연장 1200km, 연간 수송량 550억m³로, 러시아 국영 가스사업자 가스프롬(Gazprom)의 주도하에 OMV(오스트리아), 셸(Shell, 영-네덜란드), 엔지(Engie, 프랑스), 윈터셸(Wintershall, 독일), 사이팸(Saipem, 이탈리아), 올시스(Allseas, 스위스) 등이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은 사업 초기부터 러시아의 EU 내 영향력 확대와 자국산 가스의 EU 수출 감소를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프로젝트 참여 개인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킴
- 미국의 제재 법안 통과에 독일과 러시아는 물론 EU도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독일과 러시아는 공사를 강행하기로 합의함

그림. 노드스트림과 노드스트림-2 가스관 연결 지역



자료: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S3KOOPTI9>

■ 수중 파이프 건설 전문선박 ‘아카데미 체르스키(Akademik Cherskiy)’ 호가 독일 ‘무카란(Mukran) 항’에 정박했음

- 미국의 제재 법안 통과로 발트 해에서 수중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던 스위스 기업 올시스(Allseas)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가스프롬은 자사의 수중 파이프라인 건설 전문선박 ‘아카데미 체르스키’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러시아 극동지역 나홋카 항에 정박 중이던 ‘아카데미 체르스키 호’는 지난 2월 10일 나홋카 항을 출발해 최근 독일 북부 ‘무카란 항’(독일 베를린 북쪽 약 300km)에 도착함
- ‘노드스트림-2’ 가스관 프로젝트는 2019년 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제재 법안 통과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고 있음. 러시아는 ‘아카데미 체르스키 호’ 투입 등의 조치를 통해 연내 완공을 서두르고 있음

그림. 독일 무카란 항에 정박 중인 ‘아카데미 체르스키’ 호의 위성사진



자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5-16/russian-nord-stream-pipeline-vessel-docked-at-construction-site>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l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5-16/russian-nord-stream-pipeline-vessel-docked-at-construction-site> (2020.5.20. 검색)
- <https://cm.asiae.co.kr/article/2018083109204684473> (2020.5.20. 검색)
- http://kba-europe.com/xs/index.php?mid=board_LXQd40&document_srl=5652&listStyle=viewer&page=17 (2020.5.20. 검색)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주·네네츠 자치구 통합 추진, 연방정부 투자 확대로 북극권 개발 기대

■ 5월 13일, 아르한겔스크주와 네네츠 자치구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5월 13일, 네네츠 자치구 나리얀마르(Naryan-Mar)에서 아르한겔스크 주지사와 네네츠 자치구 수반은 두 지역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노력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음
- 두 지역의 통합은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주민 투표는 2020년 9월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한 대규모 주민 토론회를 위한 워킹 그룹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
- 러시아 북서연방관구에 소속된 아르한겔스크주는 육상과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12세기 무렵부터 서유럽 무역의 거점으로 발달하였으며, 최근에는 북극 자원 및 북해 항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네네츠 자치구의 인구는 약 4만 4000명이며, 러시아인(66.1%), 네네츠족(18.6%), 코미인(9%)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아르한겔스크 북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러시아의 주요 석유 생산 지임

그림. 아르한겔스크주와 네네츠자치구 지도



자료: <https://handofmoscow.com/2020/05/14/the-published-map-of-enterprises-of-russian-regions/>

■ 통합의 주목적은 경제위기 해결이며, 북극 개발 등 전략 과제에 대한 연방 투자 확대를 기대함

- 네네츠 자치구 수반 유리 베즈두드니(Yury Bezudny)는 광물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상황이 현재 “재앙적” 이라며, 통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임
- 지역 정치인들은 통합으로 연방 정부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북극 개발을 위한 물류 시스템 개선 등 전략 과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합병을 위한 절차와 법을 준수하고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함. 특히 네네츠 자치구의 원래 목적인 원주민들의 전통적 생활 방식 보존과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주목할 것을 권고함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l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 a)<https://tass.com/economy/1157675> (2020.5.19. 검색)
- b)<https://en.portnews.ru/news/295759/> (2020.5.19. 검색)
- c)<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coronavirus-russia-food/update-1-russia-suspendsex-ports-of-processed-grains-idUSL8N2BG6OQ/> (2020.4.13. 검색)

러시아 공수 부대, 세계최초로 북극상공에서 낙하 훈련

■ 러시아 공수부대 북극 1만 미터 상공에서 세계최초 낙하훈련 성공리에 마침

-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시간 4월 26일 러시아 공수부대가 산소장비가 장착된 특수 낙하산을 이용하여 세계최초 북극 상공 1만 미터에서 실시한 낙하훈련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함^{a)}
- 이와 더불어 북극함대의 전술부대는 드론을 활용하여 케이프 님로드(Cape Nimrod) 주변을 정찰하는 연습도 병행하였음
- 아울러 이번 훈련은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과 러시아 공수부대 창설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3일 간의 강도 높은 훈련이었으며, 앞으로 매년 이와 유사한 훈련을 실시할 것임

■ 러시아, 북극항로 주변 군사기지 증설 및 훈련 증가

- 러시아는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새로운 항로로 부상한 북극지방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력의 증강배치가 눈에 띄고 있음
- 특히 북극지방을 중심으로 배치된 수많은 레이더 기지와 방공무기 시스템(그림 2 참조), 그리고 이번에 실시한 훈련 등은 러시아가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계획의 하나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음
- 북극은 전 세계 미개발 원유의 13%와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 주목 받고 있는 북극항로^{b)} 등이 있어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러시아는 북극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2014년 12월부터 북부 합동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북극 현지에서의 기지복구 및 재건설뿐만 아니라 각종 해상물자 운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a) 2014년 이후 러시아와 미국은 북극에서 낙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 실시한 낙하훈련은 이번이 처음임

b) 북극항로는 동북아 지역과 유럽지역을 운행하는 해상운송 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음. 부산과 로테르담(네덜란드) 간 2만 2000km 항해거리가 1만 5000km로 줄어들게 됨. 로테르담에서 요코하마는 2만 7000km에서 1만 2700km로, 뉴욕에서 상하이는 1만 9600km에서 1만 4500km로 단축됨

그림. Nagurskoye 공군기지를 배경으로 한 러시아 공수부대



그림. 북극항로 주변 러시아군 배치



자료: <https://www.highnorthnews.com>

황선일,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hwang@kmi.re.kr/051-797-4675)

참고자료

- a) <https://www.highnorthnews.com/en/russian-paratroopers-perform-first-ever-high-altitude-jump-over-arctic-0> (2020. 5. 8. 검색)
- b) <https://www.yna.co.kr/view/AKR20150312153900009> (2020. 5. 8. 검색)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2035 북극전략 세부 프로그램 개발 착수

■ 극동북극개발부가 2035 북극전략 세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음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북극전략 세부 프로그램이 ‘2035년까지 북극개발 전략의 기초’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지역 발전의 주요 영역과 목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단계를 포함한다고 발표함
- 새로운 문서에는 현재 국가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북극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임
-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는 북극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투자자들의 세금 감면과 비과세 우선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법률 초안을 검토하고 있음
- 특히, 북극 투자 대출 보험료와 금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프라 투자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이 같은 하위 프로그램의 하나로 광물자원센터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 북극권 경제 및 인프라 사업 추진이 투입됨

■ 러시아, 2035년까지 북극개발 전략의 기초 수립·추진

- 3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35년까지 북극개발 전략의 기초’를 대통령령으로 승인함
- ‘2035년까지 북극개발 전략의 기초’에는 러시아 북극 지대에서 주권과 영토보전을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 연결성을 유지하며,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북극권 원주민들의 삶의 수준과 주거 환경 향상, 환경보호, 북극항로 개발을 목표로 함
- 러시아 북극지대에서 군사안보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극지대에서 군기타 부대 및 기관 능력 향상, 동맹국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전투 잠재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임
- 러시아 북극지대에서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극 해양 공간에서 국제법적 격차를 해소하고, 외국 및 국제기구가 러시아 북극에서 법적·경제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군사력을 증대하여 분쟁 잠재력을 증대시키거나, 북극에서 러시아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함
- 러시아는 2035 북극전략 국가프로그램 예산을 2020~2022년에 500억 루블로 책정했고, 개발 자금은 190억 달러로, 3년 간 지역거점을 만드는 것과 러시아 극동과 북극 인적자본개발기구(The Agency for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Arctic)를 위해 140억 달러를 책정했음

참고자료

- a) <https://tass.ru/ekonomika/8464809> (2020. 5. 17. 검색)
- b) <https://iz.ru/1010765/2020-05-13/v-rossii-nachali-razrabotku-programmy-razvitiia-ark-tiki> (2020. 5. 16. 검색)
- c) <https://www.kommersant.ru/doc/4277362> (2020. 5. 16. 검색)
- d) <https://minvr.ru/press-center/news/24454/> (2020. 5. 17. 검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크라이나 노동조합의 활동 적극적

■ 우크라이나 해상운송 노동조합, 국제해사기구와 공동으로 해상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 우크라이나 해상운송 노동조합(MTW TU)은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상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연합활동을 수행하였음
- 해상운송 노동조합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선원들을 지속적으로 대표해 왔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상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음
-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강조한 선원 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주요 핵심인원으로서의 선원의 지위 인정, 그리고 임무교대와 관련된 선원이동의 원활한 지원^{a)}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 우크라이나 선원노동조합, 노조복지기금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활동에 동참

- 선원노동조합(Seafarer's Union)은 해상 운송을 위한 노조복지기금(Union 's Welfare Fund)을 활용하여 기존 조합원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특히 우크라이나 해군과 해운업계 은퇴자 및 의료봉사자들에게 개인보호 장비와 소독제를 포함한 위생 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과 가족들에게는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활동을 수행함^{b)}
- 우크라이나 선원노동조합은 단지 단체 교섭이 필요한 상황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돌보고 더 넓은 지역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그 역할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음

그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크라이나 해상운송 노동조합과 선원노동조합 지원활동



황선일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hwang@kmi.re.kr/051-797-4675)

참고자료

- a)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8-IMO-SG-message.aspx>
- b) <https://www.etf-europe.org/covid-19-ukrainian-seafarers-union-and-community-welfare/>(2020.5.7. 검색)

아르메니아, 최근 4개월 간 남코카서스 철도 물동량 발표

■ 아르메니아 남코카서스 철도공사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종합적인 물동량을 발표 하였음

- 남코카서스 철도공사(South Caucasian Railway)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처리한 물동량은 97만 4100톤으로,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에 처리된 물동량보다 8.4% 상승한 수치임. 구체적으로 작년 대비 수입화물 규모는 8.9%가 감소한 반면, 수출 규모는 7.6% 상승하였음. 또한 철도를 활용한 국내 물동량은 15.2%의 큰 상승률을 보였음
- 알렉세이 멜니코프(Alexey Melnikov) 남코카서스 철도공사 대표이사는 “올 해 4개월 동안 전 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 물동량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임무들을 해낸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 직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남코카서스 철도공사는 러시아 철도공사(Russian Railway)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로, 아르메니아의 모든 철도 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있음. 철도 양도계약^{c)}은 2008년 2월 13일에 체결되었으며, 운영 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추가 1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남코카서스 철도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및 여객수송량 감소 대비와 의료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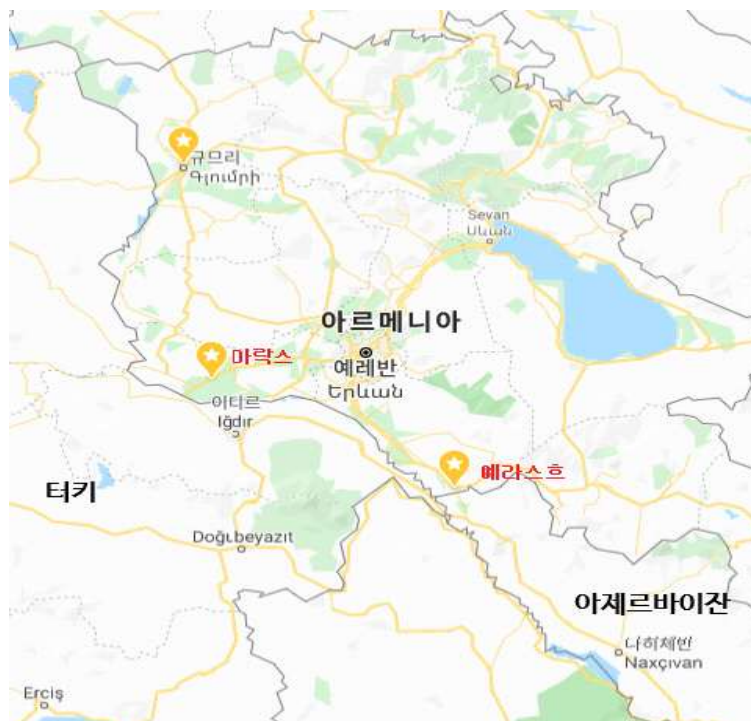
- 이처럼 화물 물동량에서는 상승세를 보여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전반적인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여객수송 분야가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최근 4개월 동안 이용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2%가 감소한 1만 8800명을 기록하였음
- 이처럼 전반적인 운영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직원 평균 임금은 24만 6000드람(한화 약 62만 원)으로 상승한 바 있음. 이에 기업 내부 차원에서 임금 삭감 대신 6월 1일부터 직원 포상 기준을 기업 전체 실적에서 개인별 실적으로 변경하였음
- 한편 철도공사는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4월 1

c) 2008년 아르메니아 교통부-러시아 철도공사 간 아르메니아 철도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30년 간 운영권 양도

4일부터 무료 철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의료진은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특수 상황 통행허가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 예레반(Yerevan)–규프리(Gyumri) 노선, 예레반–아락스(Araks) 왕복노선, 예레반–예라스흐(Yeraskh) 왕복 노선에 적용되었음

- 특히 아락스와 예라스흐 지역의 경우 각각 아르메니아와 긴장 관계에 놓여있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대에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 이에 따라 원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림. 남코카서스 철도 주요 의료지원지역 위치



자료: <https://map.google.com>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mirinae2929@gmail.com/+7 981-198-65-06)

참고자료

- <https://ru.armeniasputnik.am/economy/20200505/22945678/Pandemiya-povliyala-na-obem-gruzoperevozok-YuKZhD-v-kompanii-obnarodovali-dannye.html> (2020.5.12. 검색)
- <https://ru.armeniasputnik.am/society/20200414/22725091/YuKZhD-predostavit-medrabotnika-m-na-period-ChP-besplatnyy--proezd-v-elektropoezdakh-.html> (2020.5.12. 검색)



주요 통계



표. 2020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9.8 (+6.4%)	6.7 (+0.5%)	16.5	+4.0%
북극해	2.4 (-5.7%)	6.2 (+1.5%)	8.6	-0.6%
발트해	8.7(-0.1%)	13.5 (+9.3%)	22.2	+5.4%
아조프-흑해	7.4 (-5.8%)	13.1 (-2.3%)	20.5	-3.6%
카스피해	0.3 (+33.8%)	0.4 (+60%)	0.7	+46.0%
합계	28.7 (+0.2%)	39.9 (+2.9%)	68.6	+1.7%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portnews.ru/news/291375/> (2020. 3. 13. 검색)

표. 2020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64,077.5	57,507.0	263,258.0	56,897.6	819.4	609.4
광물 제품	1,018,984.4	10,837.5	1,001,394.2	6,513.1	17,590.2	4,324.5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31,776.1	5,718.6	931,770.3	5,718.6	5.8	-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383.2	56,041.6	4,133.1	55,765.6	250.0	276.0
가죽원료, 모피 제품	3.1	2,465.0	2.6	2,455.0	0.5	10.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65,142.8	6,562.8	64,593.2	6,512.7	549.6	50.2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309.8	41,487.8	180.2	40,919.8	129.6	568.1
금속 및 금속 제품	38,121.6	41,192.3	38,088.8	40,000.0	32.8	1,192.4
기계류	10,884.6	325,291.4	10,400.7	324,793.5	484.0	497.9
기타	410,115.6	34,755.4	408,798.4	34,494.2	1,317.2	261.2
합계	1,812,022.6	576,140.9	1,790,849.2	568,351.4	21,173.4	7,789.5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 (2020.3.15. 검색)

표. 2020년 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동어	99,387	137,527.8	2,132.9	2 133	99,333	137,477.9	2,132.9	2,133	54	49.9	-	-
연어류	1,332	3,414.2	-	-	1,332	3,414.2	-	-	-	-	-	-
넙치	263	1,480.5	-	-	263	1,480.5	-	-	-	-	-	-
가자미	1,453	1,603.8	-	-	1,453	1,603.8	-	-	-	-	-	-
가자미류	2,916	3,442.3	-	-	2,916	3,442.3	-	-	-	-	-	-
청어	15,621	11,180.9	-	-	15,567	11,131.0	-	-	54	49.9	-	-
대구	6,534	19,897.0	-	-	6,534	19,897.0	-	-	-	-	-	-
명태	68,100	89,713.1	-	-	68,100	89,713.1	-	-	-	-	-	-
농어	1	1.9	-	-	1	1.9	-	-	-	-	-	-
간, 곤이 (어란)	1,078	3,173.6	-	-	1,078	3,173.6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419	631.9	-	-	419	631.9	-	-	-	-	-	-
생선 필렛, 어육	2,465	7,018.3	937.6	938	2,465	7,018.3	937.6	938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0	0.6	27.9	28	0	0.6	27.9	28	-	-	-	-
갑각류	3,362	71,161.8	27.0	27	3,362	71,152.9	27.0	27	-	-	-	-

계류	2,811	66,794. ₁	-	-	2,810	66,785. ₂	-	-	0	8.8	-	-
조개류	2,365	9,552.4	-	-	2,365	9,552.4	-	-	0	8.8	-	-
가리비류	72	133.8	-	-	72	133.8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2,029	6,537.7	11.0	11	2,029	6,537.7	11.0	11	-	-	-	-
수산 무척추 동물	950	2,882.0	-	-	950	2,882.0	-	-	-	-	-	-
성게류	949	2,874.9	-	-	949	2,874.9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0.3.15. 검색\)](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0.3.15. 검색))